/지역 단신/

진도 올 하반기 진도개 방역·심사

진도군(군수 박연수)은 오는 9월4일부터 28일까지 진도개 방역 및 심사를 실시한다.

진도군에서는 진도개시험연구소 수의사와 공인심사원, 진도개진도축협 직원으로 심사 및 방역반을 구성하여 매년 2회에 걸쳐 1만2천여마리의 진도개를 대상으로 심사와 방역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심사 대상은 생후 6개월 이상 된 미심사견으로 표준체형 심사표에 의거 심사원 2명이 합의심사하고, 합격견에 대해서는 고유번호가 입력된 전자칩을 투여하여 등록 관리하게 된다.

또 진도개 방역을 위해 종합백신접종 및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공급할 계획이다.

※ 읍·면별 일정표

▲진도 : 9월 4일~8일 ▲의신 : 9월 4일~11일 ▲군내 : 9월 11일~15일 ▲임회 : 9월 12일~9월 19일 ▲고군 : 9월 18일~21일 ▲지산 : 9월 20일~25일 ▲조도 : 9월 25일~28일

장성 내달부터 군내버스 노선 개편

오는 9월 1일부터 21개 노선이 신설되고 9개 노선이 증회되는 등 장성지역 군내버스 노선이 개편된다.

이에따라 버스가 들어가지 않은 21개 마을에 하루 2~4회의 신규노선이 개설되고 총 31개 마을에 52회가 추가 운행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이번 노선개편은 이동수단이 없는 노인들과 군민들의 불편 해소에 역점을 뒀다"며 "향후 교행차로 확보 등 도로여건 개선을 통하여 전 마을 군내버스 운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성=고재빈기자 jbgo@

"여수에 한의학 대학원 설립해야"

여수시의회가 29일 '전남대와 여수대의 통합조건이었던 한의학 전문대학원이 여수캠퍼스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청와대와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열린우리당 등에 보냈다.

시의회는 건의문에서 "구 여수대학교는 90년간의 명예를 뒤로하고 정부의 국립대학 통합 사업에 적극 협력, 올 3월 국내 최초로 종합대학간 통합인 전남대와의 통합을 이뤄냈다"면서 "한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이 대학통합을 승인한 전제조건이었던 만큼 여수캠퍼스가 전남지역 한방산업 육성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천연생물자원이 풍부, 한의학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대단한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전남지역에 한의학 전문대학원이 설립되는 것은 당연하며 전남동부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인 만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여수캠퍼스에 설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수대·전남대 통합 전제조건"
시의회 黨·靑 등 각계에 건의문

한편 이날 여수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여수중소기업협의회, ㈜여수경영인협회, ㈜여수지역발전협의회도 청와대, 국무총리,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수·순천·광양지역 국회의원들에게 한의학 전문대학원 설립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화순 죽청교 붕괴 우려

〈능주-도곡 연결 다리〉

수년간 관리·보수 안해 난간 없어지고 기반도 무너져
郡-익산지방국토청 '관리 떠넘기기'에 주민 불안 가중

화순군이 수년간 관리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해 다리 난간이 모두 떨어져 나간 죽청교.

화순군 도곡면 죽청리와 능주면 남정리를 연결하는 죽청교가 관리부실로 붕괴 우려가 있어 주민들이 보수나 교량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이 교량은 화순군에서 10여년전에 세웠으나 수년동안 관리를 하지않아 다리 난간이 모두 떨어져 나가고 교량 기반도 무너져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 김모씨는 "주민들은 하루에도 농삿일때문에 수십번씩 무방비상태로 교량을 사용하고 있다"며 "화순군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 했지만 군 토목계와 농촌개발계는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 안전관리는 커녕 보수한번 하지않고 손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지난 28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정부에 30억여원의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이나,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교량 신설이 어렵다"며 "구 교량관리는 자치단체에서 해야하나 화순군이 전혀 신경을 쓰지않아 보수가 안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죽청교에서 1㎞ 떨어진 도곡면 미곡교는 2001년에 30억여원을 투자해 가설했고, 도곡면 신덕교는 사업비 35억여원을 투자해 현재 신설 공사중에 있다.

하지만 도곡면 미곡교와 신덕교는 일반도로가 없어 하천 제방을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 도로개설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지난해에 어린 학생이 도곡면 신덕리 세월교(현 신덕교 자리)에서 넘어져 지석천으로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 화순군이 8천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완도해경 전용부두 이전 난항

상권 위축·바다오염 우려
주민들 "다른곳에 신설해야"

완도해양경찰서가 전용부두를 완도항 제1부두로 이전하려는 계획에 지역 주민들이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어 이전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지난 28일 완도군번영회, 군청년회 등 관내 유관기관 단체장, 주민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해경 전용부두를 제1부두가 아닌 다른 곳에 신설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날 참석자들은 100억원 이상을 들여 신설할 해경전용부두가 비좁은 완도항 중심부에 위치할 경우 ▲2천100여평의 바다를 매립해야하는 데다 ▲140m 길이의 대형 부잔교를 연결해 대형 경비함정과 소형함정이 동시 접안, 바다조류 소통이 원활치 않아 연안바다 오염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 ▲부잔교를 피해 주도에 근접해 선박을 운항할 경우 수심이 낮아 사고위험이 크고 ▲신설 전용부두 주위에 철조망을 설치하게 되면 관광객과 주민의 접근이 통제될 뿐더러 각종 선박 위치를 제한해 위화감을 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특히 천연기념물 제28호인 주도와 부잔교 거리가 너무 가까울 뿐더러, 천연기념물 주변에 각종 시설물을 신설하려면 관계기관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데 이같은 행정절차를 무시한 것도 잘못이라고 어민들과 번영회측은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철원 완도해경 서장은 "전용부두 이전은 전임 서장때 세운 계획"이라며 "전군민들이 반대한다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귀추가 주목된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주민피해 뒷짐 진 신안군의회

한전 정전사태 사후대책 마련 않고 수수방관
주민들 "민·관 합심해도 부족할 판에…" 분노

최근 신안군 섬지역에서 발생된 한전 고압 송전선로 정전사태로 인해 100억여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했는데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군 의원들이 수수방관 하고 있어 군민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20일 발생한 신안군 암태면 초란도와 본도 간을 잇는 한전 송전선로 절단 사고로 52개소 양식장에서 키우던 새우를 비롯 전어,꽃게,숭어등 4천600만여마리가 폐사돼 95억7천7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같은 사고가 발생하자 관계 공무원들이 수시로 피해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사후대책마련에 연일 고심하고 있으며 피해어민들 역시 '신안군 송전사고 양식장 피해대책 위원회'를 구성해 한전등 가해자측과 배상협의를 추진하는 등 동분서주하고 있다.

그러나 신안군의회는 군 집행부와 피해 주민들의 사고수습 대책 노력과는 대조적으로 군청 관계 공무원들을 대동해 30일부터 7일간 관내 14개 읍·면 건설공사 현지확인에 나섰다.

이에대해 군민들은 '군수 부재중에 발생한 막대한 재산피해 사후대책에 민·관이 합심해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 이때 군 의원들이 때 아닌 사업현장 확인을 나서는것은 피해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반면 신안에서 열린우리당과 무소속으로 군 의원에 당선된 압해면 정영도의원과 흑산면 박삼성의원등은 정전사고가 발생하자마자 주영찬 군수 권한대행 및 관계공무원들과 피해 현장을 찾아가 주민들 위로와 피해실태조사를 벌여 대조를 이뤘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소음·악취' 목포 석현동 쾌적해진다

사료공장·도축장측 방음실 등 각종 시설 보완키로

인근 사료공장과 도축장,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악취 등으로 3중고에 시달려왔던 구 목포지방산업단지내 석현동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돼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 (본보 21일자 11면 보도)

사료공장측은 우선 1차로 약 2억원을 들여 방음시설공사를 마친데 이어 오는 9월1일부터 소음기기 내부이설 및 철거와 비산먼지를 줄일 수 있는 포집설비 및 환기용 벤츄레이터 보완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야간시간대 운전하는 각종 기기에도 방음실을 설치하는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시설을 보완키로 했다.

도축장에서도 목초액을 이용한 악취방지시설을 갖췄으며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는 공휴일 작업 중지 및 장비작업 조기완료, 방음판 설치 등을 마무리했으며 피해 보상협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료공장 관계자는 "당장 이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나 앞으로도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하면 수시로 대책을 강구하고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목포 갈치 낚시체험 기차여행 상품 판매

목포의 '갈치 낚시'가 관광상품으로 개발됐다.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지사는 오는 9월1일부터 10월 29일까지 두 달간 일반인과 전문 낚시인을 위한 '목포 갈치낚시 체험'이라는 이색 관광상품을 운영한다. 특히 이 상품 이용자는 각종 낚시도구 등 일체를 대여받을 수 있어 가벼운 마음으로 낚시를 즐기기에 적당하다.

야간주민불편신고센터 목포 평화광장에 개설

목포시는 야간에 시민들이 많이 찾는 평화의 광장에 오는 9월 1일 부터 9월 30일까지 '야간 주민 불편신고 센터'를 개설 운영한다.

야간 '주민 불편신고센터'에서는 갓바위 등산로에서 영산로 제방까지 평화광장 주변 보도의 노상 적치물을 단속하는 등 시민들의 민원해소에 주력할 계획이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장흥 진목·반월 주민들 수도권 마케팅

호박축제·장수풍뎅이 생태체험 홍보

지난 7월과 8월 전국 최초로 장흥 못생긴 호박축제와 장수풍뎅이 생태체험 나드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던 호박나라 진목마을과 장수풍뎅이 반월마을 주민들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사진〉

진목과 반월마을 주민들은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수도권 소비자를 대상으로 농협성남 농수산물유통센터(사장 최훈구)에서 생태 체험장 관촉행사를 벌인데 이어 부산 연제구와 농협 순천점에서 판촉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호박나라 진목마을 이장 이황우씨는 "수도권 판촉행사를 통해 6천만원 상당의 판매실적을 올렸으며 행사장을 찾은 수도권 판매자들이 '잊혀져 가는 옛고향의 향수를 느낄 수 있다'며 환영하는 분위기였다"며 "마을주민들도 생산자 입장에서 벗어나 소비자 입장에서 앞으로 농산물을 어떻게 생산할 것인지 직접 확인하는 소중한 체험의 장이 됐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 새얼굴

"문화관광·스포츠마케팅사업 박차"

정화균 해남군 부군수

"지난 30여년간 익혀 온 공직경험과 지식으로 희망찬 해남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임 정화균 해남 부군수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문화관광산업과 스포츠마케팅사업을 활발히 펼쳐 군민 소득증대에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광출신인 정 부군수는 전남도 감사관실 감사담당, 기획관리실 재정담당관을 거쳐 영광군 부군수를 역임했다. 가족으로는 부인 이두복씨와 2남이 있으며 취미는 등산과 마라톤.

/해남=박정옥기자 jopark@

"화합하며 존중하는 '신바람' 진도 조성"

이인곤 진도군 부군수

"진도군의 주요 현안사업과 당면 문제해결을 위해 부군수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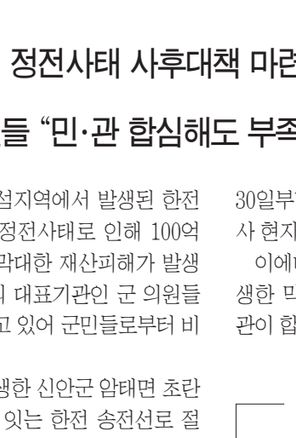
지난 28일 부임한 이인곤(49) 진도 부군수는 "활기찬 진도군을 만들고 동료 공직자들이 서로 화합하고 존중하며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부군수는 담양 출신으로 전남도 해양자원과장, 어업생산과장, 해양항만과장 등 해양수산업무의 주요 직책을 역임했다. 가족으로는 부인 윤애란씨와 2남, 취미는 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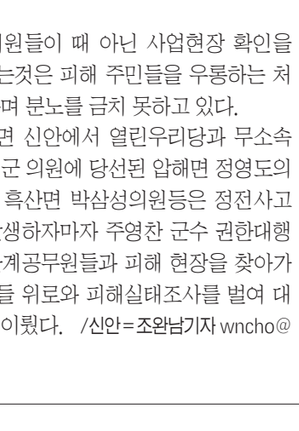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movies
인기영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Happy Time
영화안내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메가박스
구.런던악국사거리 ♡예매1544-0600
M관 과물 (12세/디지털) 최고급관
2관 레이크 하우스(12세)
3관 각설탕(전체)/겁나는 여친의 완벽한 비밀(15세)
4관 천하장사 마돈나(15세)
5관 원탁의 천사(15세)/아이스케키(전체)
6관 해변의 여인(15세)
7관 13구역(15세)/일본침몰(12세)
8관
9관 예의없는 것들 (18세)
Megatizen Day 매주 목 금 영화 4,000원 관람
• 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3시간 무료
(단 영화관람고객에 한함) :3시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팝콘이 무제한 공짜 (매일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주차장이 편한 극장
엔 터 시네마
충장로 5가 ☎ 228-2700
1관 원탁의 천사(15세)
2관 예의없는것들(15세)
3관 일본침몰(15세)
4관 신데렐라(15세)
5관 과물 (12세)
6관 마이에미바이스(18세)/겁나는 여친의 완벽한 비밀(15세)
7관 아이스케키(전체)
8월31일부터상영 금,토(2일간) 심야상영 • 자막등시작30분전(3시간두전) •
• 매주 월요일 회원님 보너스 2,000원 할인(금액제외) • 매주금토 심야 2,000원 할인
• 매주 목요일 Teen Age Day 중,고생 1,500원 할인 (공휴일제외)



화합시청 영화사랑 • 예매:www.joycbc.com/ 1588-7941
콜롬버스 시네마 하남점 상무점
하남점 (구역화관뒷면) 상무점 (상무병원과 이마트 사이)
1관 아이스케키(전체)
2관 각설탕(전체)/13구역(15세)
3관 예의없는것들(15세)
4관 해변의 여인(15세)
5관 레이크 하우스(12세)
6관 천하장사 마돈나(15세)
7관 과물(12세)
8관 몬스터 하우스(더빙/전체)/신데렐라(15세)
9관 원탁의 천사(15세)
10관 일본침몰(12세)
• 호남 최대 주차장 ※예매실비 상영합니다
콜롬버스 하남점 (10개관) 잠실점 상영중
1588-7941
상담원연결 방법→ (1번 or 2번) → 0번

써너스 광주 8개관
9월15일 개관 예정
T.383-3445~7
★남·여 직원 및 아르바이트 모집★
상가임대문의
T.(062)384-3535